(745)

조 선

주체107
(2018) 8

차 례

표지: 려명거리의 아침
사진 변찬우

화보 《조선》은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로 발행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미합중국 대통령 도날드 제이. 트럼프와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의 쎈토사섬에서 조미 두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수뇌상봉과 회담을 진행하시였다.

전세계가 하루하루 기다려온 세기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싱가포르의 곳곳에는 수천명의 내외신기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운집되여 력사에 길이 남을 이날의 순간순간을 주시하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현지시간으로 오전 8시 10분 숙소를 떠나시여 회담장인 싱가포르 쎈토사섬의 카펠라호텔에 도착하시였다.

조미수뇌분들께서 첫 상봉을 하시게 될 회담장 로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미합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있었다.

현지시간으로 오전 9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미합중국 대통령 도날드 제이. 트럼프와 상봉하시고 첫 악수를 나누시였다.

조선반도가 둘로 갈라져 대립과 반목의 력사가 흘러온 70여년만에 처음으로 조미수뇌분들이 화해를 향한 첫발을 내디디고 대화의 장에 마주서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트럼프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신 다음 담소를 나누시며 회담실로 향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트럼프대통령사이의 단독회담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오늘 여기까지 와닿는 과정이 결코 헐치는 않았다고 하시면서 과거의 력사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지만 그 모든것을 과감하게 짓밟고 이렇게 이 자리에까지 왔으며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였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조미수뇌분들께서는 수십년간 지속되여온 적대적인 조미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솔직한 의견을 나누시였다.

조미수뇌분들의 단독회담에 이어 확대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에서는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이며 심도있는 론의가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트럼프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측대표단과 이렇게 자리를 같이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적대적과거를 불문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현실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통령의 의지와 열망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미합중국 트럼프대통령은 이번 수뇌회담이 조미관계개선에로 이어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올해초부터 취하신 주동적이며 평화애호적인 조치에 의하여 불과 몇개월전까지만 하여도 군사적충돌의 위험이 극도에 달하였던 조선반도와 지역에 평화와 안정의 분위기가 도래하게 되였다고 평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고있는 뿌리깊은 불신과 적대감으로부터 많은 문제가 산생되였다고 하시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고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량국이 서로에 대한 리해심을 가지고 적대시하지 않는다는것을 약속하며 이를 담보하는 법적, 제도적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미쌍방이 빠른 시일안에 이번 회담에서 토의된 문제들과 공동성명을 리행해나가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갈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트럼프대통령이 제기한 미군유골발굴 및 송환문제를 즉석에서 수락하시고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것이 지역과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에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면해서 상대방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군사행동들을 중지하는 용단부터 내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미합중국 대통령은 이에 리해를 표시하면서 조미사이에 선의의 대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미합중국 대통령 도날드 제이. 트럼프와 상봉하시고 첫 악수를 나누시였다. 주체107(2018)년 6월

조미관계의 새 력사를 개척한 세기적만남

력사상 첫 조미수뇌상봉과 회담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트럼프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주체107(2018)년 6월

가 진행되는동안 조선측이 도발로 간주하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안전담보를 제공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개선이 진척되는데 따라 대조선제재를 해제할수 있다는 의향을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미국측이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구축조치를 취해나간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게 계속 다음 단계의 추가적인 선의의 조치들을 취해나갈수 있다는 립장을 밝히시였다.

조미수뇌분들께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에서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을 준수하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시였다.

이날 조미수뇌분들과 쌍방회담성원들이 참가하는 오찬이 있었다.

오찬에서는 조미회담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조미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쌍방사이에 의사소통과 접촉래왕을 보다 활성화해나갈데 대한 의견들이 교환되였다.

조미수뇌분들께서는 오찬이 끝난 후 함께 산책하시며 친교를 두터이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와 미합중국 도날드 제이. 트럼프대통령은 력사적인 싱가포르수뇌회담 공동성명에 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오늘 과거를 덮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공동성명에 서명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세계는 중대한 변화를 목격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트럼프대통령과 력사적인 문건을 채택한 기념으로 뜻깊은 사진을 찍으시고 작별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트럼프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시였으며 트럼프대통령도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 미국을 방문하여주실것을 초청하였다.

조미수뇌분들께서는 이러한 초청이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를 쾌히 수락하시였다.

전세계의 열광적인 지지와 환영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된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은 조선반도와 지역에 도래하고있는 화해와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한 력사적흐름을 보다 추동하고 가장 적대적이였던 조미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획기적으로 전환시켜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거대한 사변으로 되였다.

글 김태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와 트럼프대통령사이의 단독회담이 진행되였다.

주체107(2018)년 6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와 트럼프대통령사이의 확대회담이 진행되였다.
주체107(2018)년 6월

조미수뇌분들과 쌍방회담성원들이 참가하는 오찬이 있었다.
주체107(2018)년 6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트럼프대통령과 산책하시며 친교를 두터이하시였다. 주체107(2018)년 6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와 미합중국 도날드 제이. 트럼프대통령은 력사적인 싱가포르수뇌회담 공동성명에 서명하시였다. 주체107(2018)년 6월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날드 제이.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사이의 싱가포르수뇌회담 공동성명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날드 제이.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첫 력사적인 수뇌회담을 진행하였다.

김정은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 포괄적이며 심도있고 솔직한 의견교환을 진행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안전담보를 제공할것을 확언하였으며 **김정은**위원장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김정은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것이라는것을 확신하면서, 호상 신뢰구축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수 있다는것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기로 하였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것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것을 확약하였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골발굴을 진행하며 이미 발굴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할것을 확약하였다.

김정은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은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조미수뇌회담이 두 나라사이에 수십년간 지속되여온 긴장상태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이라는데 대하여 인정하면서 공동성명의 조항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리행하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미수뇌회담의 결과를 리행하기 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마이크 폼페오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고위인사사이의 후속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날드 제이.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발전과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전을 추동하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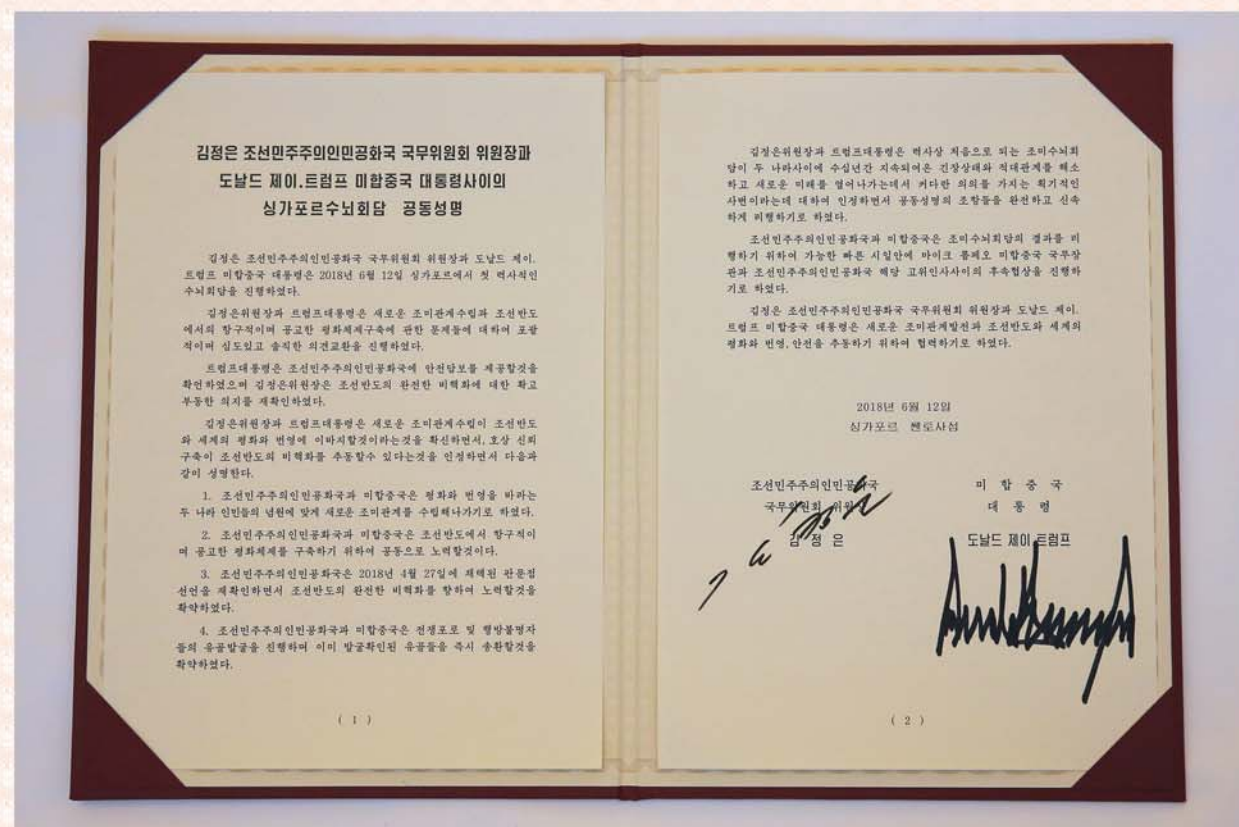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쎈토사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미합중국 대통령
김정은	도날드 제이. 트럼프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날드 제이.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사이의
싱가포르수뇌회담 공동성명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쎈토사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미합중국
대통령
도날드 제이.트럼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싱가포르공화국 수상을 접견하시였다.
주체107(2018)년 6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싱가포르공화국을 방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6월 10일 싱가포르공화국을 방문하시고 대통령궁전에서 리 시엔 룽수상을 접견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싱가포르공화국 수상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고 방명록에 친필수표를 하신 다음 친선적인 담화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싱가포르공화국을 방문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을 대표하여 싱가포르정부와 인민들에게 진심으로 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싱가포르공화국의 여러 대상을 참관하시였다. 주체107(2018)년 6월

인사와 훌륭한 축원을 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모든 조건과 온갖 편의를 제공하여준 싱가포르정부의 성의있는 협조에 깊은 사의를 표하시였다.

싱가포르수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국을 조미수뇌회담장소로 선정해준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력사적인 이번 조미수뇌회담이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석상에서는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친교를 깊이하면서 폭넓은 교류와 협조를 활성화하여 쌍무관계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문제들이 언급되였다.

담화는 화기에 넘치는 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싱가포르공화국에 체류하시면서 시내의 여러 대상을 참관하시였다.

글 김정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습근평동지와 상봉하시였다. 주체107(2018)년 6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와 리설주녀사께서는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와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주체107(2018)년 6월

나날이 더욱더 친밀해지고 두터워지는 조중친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환영하는 의식이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주체107(2018)년 6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주체107(2018)년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19일 오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 베이징에 도착하시였다.

베이징수도국제비행장에는 조중 두 나라 국기들이 게양되여있었고 중국인민해방군 륙군, 해군, 공군명예위병대와 군악대가 정렬해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전용기에서 내리시자 귀여운 어린이들이 꽃다발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중국의 당과 정부간부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19일 오후 5시 인민대회당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동지와 상봉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리설주녀사께서 인민대회당에 도착하시자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가 따뜻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환영하는 의식이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사이의 회담이 6월 19일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서는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과 기대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된 력사적인 조미수뇌상봉결과와 그에 대한 평가와 견해, 립장이 호상 통보되고 조선반도비핵화해결전망을 비롯한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관하여 유익한 의견교환이 진행되였으며 론의된 문제들에서 공통된 인식을 이룩하였다.

회담은 동지적이며 허심탄회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중국방문을 환영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동지가 19일 저녁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 앞서 참가자들은 세차례에 걸치는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력사적인 상봉을 수록한 화면편집물을 시청하였다.

연회에서는 습근평동지가 축하연설을 하였으며 이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답례연설을 하시였다.

습근평동지는 **김정은**위원장동지의 중국방문을 열렬히 환영하고 이는 중조 두 당사이의 전략적의사소통강화를 고도로 중시하고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발전시켜나가려는 위원장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었으며 중조 두 당과 두 나라 관계의 불패성을 전세계에 과시하였다고 말하였다.

습근평동지는 **김정은**위원장동지가 조선인민을 령도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였으며 조선반도에서 대화와 완화의 흐름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하여 기쁜 마음으로 보고있으며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하였다.

습근평동지는 중국과 조선은 친근한 벗과 동지로서 서로 배우고 참고하며 단결하고 협조함으로써 두 나라 사회주의위업의 보다 밝고 아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와 회담하시였다. 주체107(2018)년 6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중국방문을 환영하여 습근평동지가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였다. 주체107(2018)년 6월

름다운 미래를 공동으로 개척해나갈것이라고 확언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미수뇌상봉의 성과적인 개최로 조선반도와 지역에 새로운 력사적흐름이 태동하고있는 시기에 습근평동지와 친근한 중국동지들과 또다시 만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습근평동지가 그처럼 분망한 속에서도 이렇듯 극진하게 환대해 맞아주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오늘 조중이 한집안식구처럼 고락을 같이하며 진심으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모습은 조중 두 당, 두 나라 관계가 전통적인 관계를 초월하여 동서고금에 류례가 없는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고있음을 내외에 뚜렷이 과시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습근평동지와 맺은 인연과 정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고 조중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부단히 승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력사적인 려정에서 중국동지들과 한 참모부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협동할것이며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것이라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습근평동지와 중국공산당의 령도가 있기에 중국인민은 머지않은 장래에 중화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꼭 실현하게 될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습근평동지와 낚시터국빈관에서 또다시 상봉하시고 담화를 나누시였다.
주체107(2018)년 6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와 리설주녀사,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께서는 단란한 가정적분위기속에 서로 마주하시고 오찬을 함께 하시였다. 주체107(2018)년 6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습근평동지와 단독담화를 나누시였다. 주체107(2018)년 6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59년 10월 2일 친히 심으신 가문비나무앞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와 리설주녀사,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께서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주체107(2018)년 6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와 리설주녀사께서는 습근평동지, 팽려원녀사와 새로운 상봉을 약속하시며 작별인사를 나누시였다. 주체107(2018)년 6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국농업과학원 국가농업과학기술혁신원을 참관하시였다.

주체107(2018)년 6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베이징시궤도교통지휘쎈터를 돌아보시였다.

주체107(2018)년 6월

연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중국방문을 환영하여 중국예술인들이 특별히 준비한 예술공연이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리설주녀사께서는 습근평동지, 팽려원녀사와 함께 무대에 오르시여 성의껏 공연을 준비한 예술인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를 표하시고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습근평동지와 20일 낚시터국빈관에서 또다시 상봉하시였다.

낚시터국빈관구내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48(1959)년 10월 2일 친히 심으신 가문비나무가 오늘도 조중친선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며 푸르청청하게 서있다.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는 이 뜻깊은 곳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와 리설주녀사를 위한 상봉의 자리를 또다시 마련하고 특별한 환대를 베풀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리설주녀사께서는 존경하는 습근평동지, 팽려원녀사와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며 오늘 이렇게 또 특별한 자리를 마련한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오찬에 앞서 습근평동지와 담화를 나누시였다.

이어 **김정은**동지와 리설주녀사,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께서는 단란한 가정적분위기속에 서로 마주하시고 오찬을 함께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오찬을 마치신 후 습근평동지와 작별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습근평동지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속에 훌륭하고 만족한 방문을 진행하였다고 하시면서 중국당과 정부가 매번 각별한 마음으로 뜨겁게 맞아주고 환대해주고있는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리설주녀사께서는 습근평동지, 팽려원녀사와 새로운 상봉을 약속하시며 작별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중국농업과학원 국가농업과학기술혁신원을 참관하시였으며 베이징시궤도교통지휘쎈터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중화인민공화국주재 조선대사관을 방문하시고 대사관 성원들과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며 사업실태와 생활형편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대사관 전체 성원들과 가족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류학하고있는 학생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와 리설주녀사께서는 친근한 중국동지들의 뜨거운 바래움을 받으며 전용기로 베이징을 출발하시여 20일 저녁 평양에 도착하시였다.

글 김정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외무상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5월 31일 백화원영빈관에서 조선을 방문하고있는 로씨야련방 외무상 쎄르게이 라브로브를 접견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외무상과 반갑게 상봉하시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신 다음 일행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라브로브외무상과 일행의 조선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친선적인 담화를 나누시였다.

석상에서 라브로브외무상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보내온 로씨야련방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의 친서를 정중히 전해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따뜻하고 훌륭한 친서를 보내준 뿌찐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시고 대통령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시였다.

담화에서는 최근 세계적인 관심사로 되고있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흐름과 전망에 대한 조로 최고지도부의 의사와 견해가 교환되였으며 두 나라 정치경제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고 긴밀히 협력해나가기 위한 문제들이 론의되였다.

라브로브외무상은 조선이 북남, 조미관계를 잘 주도해나가며 실천적인 행동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함으로써 조선반도와 지역정세가 안정국면에 들어선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면서 일정에 오른 조미수뇌회담과 조선반도비핵화실현을 위한 조선의 결심과 립장을 로씨야는 전적으로 지지하며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반도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고 일관하며 확고하다고 하시면서 조미관계와 조선반도비핵화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세하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각자의 리해에 충만되는 해법을 찾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며 효률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해결이 진척되기를 희망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담화에서는 또한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조로관계를 앞으로도 쌍방의 리익에 부합되고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계속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두 나라사이의 외교관계설정 70돐이 되는 올해에 고위급래왕을 활성화하고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적극화하며 특히 조로 최고령도자들사이의 상봉을 실현시킬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

담화는 시종 친선적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글 김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로씨야련방 대통령을 만났다

국제축구련맹 2018년 월드컵경기대회 개막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로씨야를 방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지난 6월 14일 크레믈리대궁전에서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로씨야련방 대통령과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와 친서를 김영남동지가 정중히 전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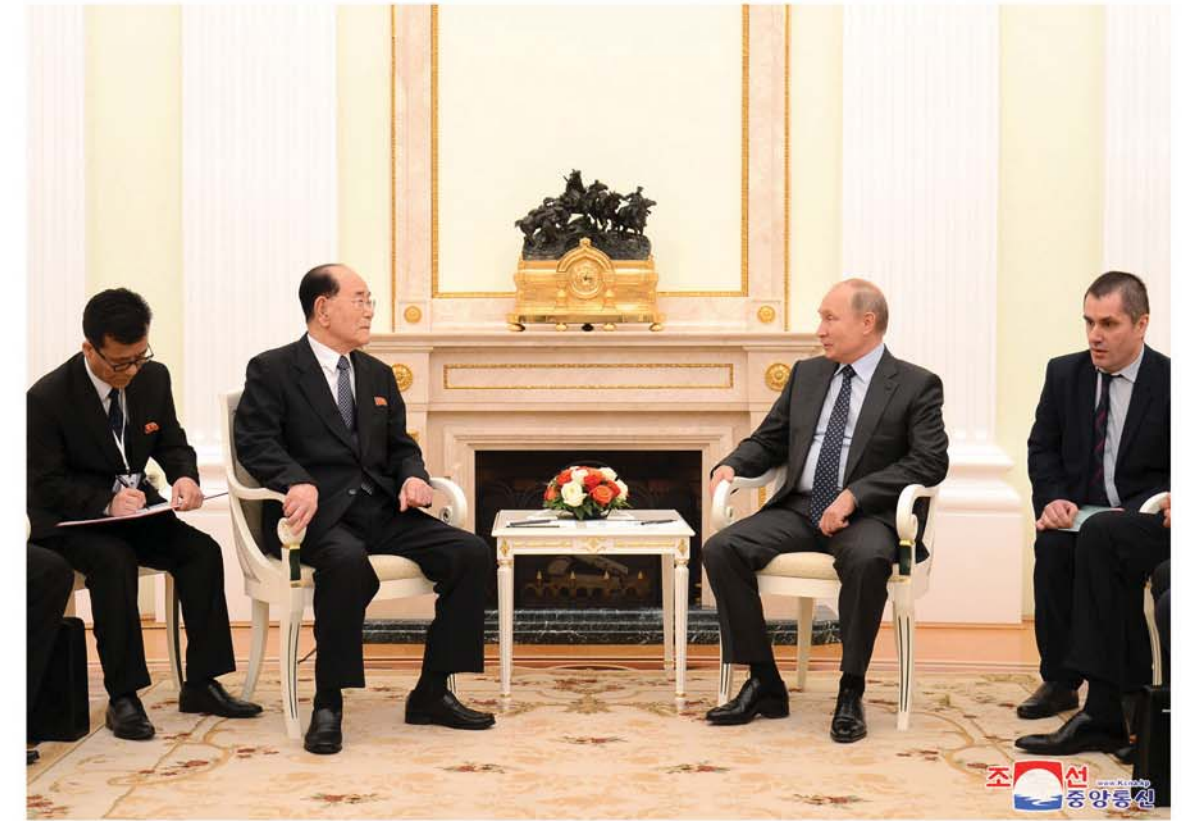
뿌찐대통령은 존경하는 **김정은**령도자께서 친서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그이께 자신의 가장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부탁하였다.

그는 김영남위원장이 국제축구련맹 2018년 월드컵경기대회 개막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로씨야를 방문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외교관계설정 70돐을 맞이하는 로조 두 나라사이의 훌륭하고 오랜 력사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과정이 시작되고 평화의 전망이 열리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면서 그는 로씨야는 앞으로도 조선반도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하였다.

김영남동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얼마전 조선을 방문한 로씨야 외무상을 친히 접견해주시고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조로관계를 쌍방의 리익에 부합되고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계속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조로외교관계설정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고위급래왕을 활성화하고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적극화하여 쌍무관계를 더욱 확대해나갈데 대해 강조하였다.

담화는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글 김선경

여러 나라들에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출판

로씨야, 도이췰란드, 민주꽁고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출판사들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하여》,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담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혁명적동지애는 일심단결의 기초이며 우리 혁명의 추진력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등의 로작들을 출판하고 발행식들을 진행하였다.

발행식들에서 연설자들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출판하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로작들에 담겨진 사상과 그 정당성에 대하여 강조하였으며 조선인민이 사회주의위업실현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것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하였다.

글 강수정

전민항전으로 이룩한 조국해방

조국해방의 날인 8월 15일을 맞이할 때면 민족재생의 새 전기를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을 더욱 가슴뜨겁게 새기게 되는 조선인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대전의 전 과정은 조선에 대한 일제의 군사적강점을 반대하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적극적인 무장투쟁의 력사와 함께 전민항쟁의 새 력사가 창조된 과정이였다.

조선의 해방은 말그대로 이 행성의 식민지민족해방투쟁사에서 처음으로 전민의 총동원으로 이룩한 사변이라고 할수 있다.

조선혁명을 개척하시던 초기에 벌써 온 나라, 온 민족을 망라하는 거족적이고 조직적이며 적극적인 반일항전으로 나라의 해방을 실현하실 구상을 펼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전 기간 그 실현에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였다.

주체25(1936)년 5월에는 범민족통일전선조직인 조국광복회의 결성과 함께 전민항쟁선언인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주체26(1937)년 9월에는 전민항쟁호소문인 《전체조선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시여 2 000만 온 겨레의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시고 반일항전에 각계각층 모두가 떨쳐나서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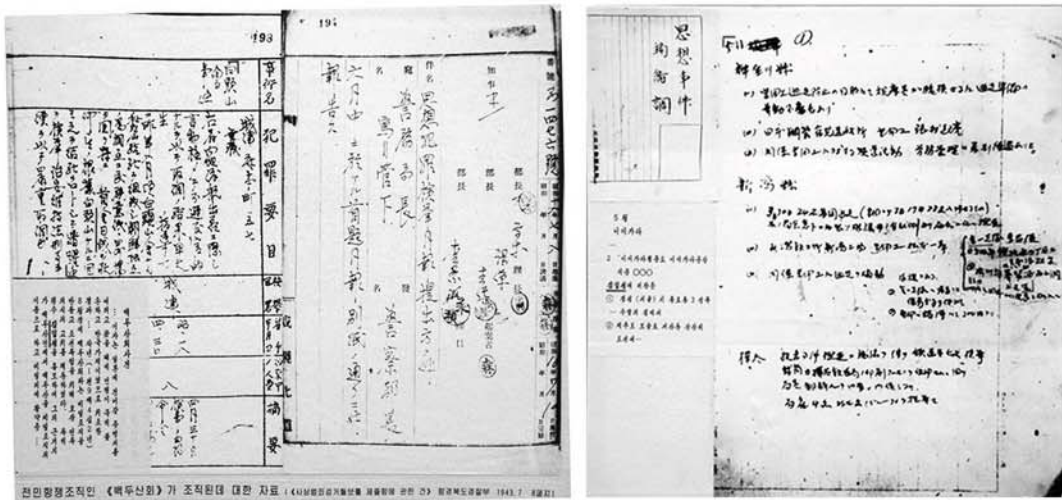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2(1943)년 1월 상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조국해방을 위한 대일최종작전방향을 제시하시면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과 그에 배합한 전인민적봉기, 배후련합작전을 조국해방3대로선으로 확정하시고 전민항쟁준비를 위한 투쟁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시켜 완성해 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 마련한 비밀근거지들을 전민항쟁의 군사정치적거점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면서 새로운 림시비밀근거지들을 꾸리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전민항쟁력량을 더욱 결속하여 조국해방을 위한 작전에 철저히 준비시키며 전민항쟁력량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실현하도록 하시였다.

도처에 비밀근거지, 림시비밀근거지들이 꾸려져 전민항쟁의 군사정치적거점이 마련되였다.

전민항쟁조직들이 도처에 조직된데 대한 자료

그리하여 일본제국주의와의 최후결전을 앞둔 시각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이 조국해방을 위한 결전에서 주동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수행할수 있는 혁명무력으로 강화되는것과 함께 국내 각지에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해방작전에 합세할 전민항쟁력량이 완벽하게 꾸려지게 되였던것이다.

주체34(1945)년 8월 9일 조국해방을 위한 총공격전을 개시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은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일제침략군을 격멸소탕하면서 진격하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오래동안 다지고다져온 전민항쟁력량의 총공세도 시작되였다.

인민무장대들과 무장봉기조직들, 광범한 인민들은 전국각지에서 일제침략군과 헌병, 경찰기관들을 습격소탕하면서 적의 후방을 교란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였으며 진격해오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을 적극 지원하였다.

전체 조선민족의 결사적이고 완강한 항전에 의하여 일제의 군사적강점은 끝장나고 조선인민은 그처럼 바라던 조국해방의 날을 맞이하게 되였다.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포악한 일제침략세력을 때려부시고 독립성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나고있다.

글 최광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리신 총공격명령을 받들어 조국해방위업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한 구호나무들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있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

일제의 패망상

온천을 리용하여

지난 6월 조선의 황해북도 린산군에 온천을 리용하는 메기공장이 새로 건설되였다.

물온도가 평균 28℃이며 하루용출량은 60여㎥로서 메기양어에 유리한 온천을 가지고있는 린산군 대촌리에 메기공장을 건설할 목표를 내세운 황해북도에서는 설계를 앞세우면서 건설력량과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공사를 힘있게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1 700여㎡의 실내종어못과 1 300여㎡의 야외못, 실내비육장과 새끼고기호동, 종합조종실, 사료가공장 등이 갖추어지고 물재순환체계가 세워진 린산메기공장이 건설되였다.

공장에서는 한해에 200여만마리의 새끼고기를 키워 도안의 시, 군들에 보내주면서도 많은 고기를 생산하여야 하는 사명에 맞게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있다.

관리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보급실운영에 힘을 넣어 선진적인 양어방법들을 받아들이고있다.

물온도, 산소함량보장과 함께 인공수정과 자연수정 그리고 알깨우기에서 과학적인 종어체계를 세워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뇌하수체를 자체로 해결하여 년간 수백만마리의 새끼메기를 생산할수 있는 토대를 갖추어놓았다.

한편 먹이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면서도 단백질함량과 먹이실수률을 높일수 있는 사료가공방법을 도입함으로서 많은 메기들을 생산하고있다.

태양빛을 리용한 전기생산은 공장의 경영활동에 적지않은 도움을 주고있다.

자연지리적조건을 효과있게 리용하고 과학적인 양어를 함으로써 린산메기공장의 실리는 나날이 높아지고있다.

사진 리학명 글 김현희

선진적인 양어방법들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과학기술보급실 운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실내비육장

새끼고기호동

박막식비육호동

여러가지 형태의 가방들이 생산된다

주체106(2017)년 5월에 조업한 평성가방공장에서는 평안남도안의 유치원어린이들로부터 소학교와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학생들은 물론 대학생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취미와 기호, 미감에 맞는 여러가지 가방들을 생산하고있다. 공장의 종업원들은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기대관리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하면서 제품의 종수를 늘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사진 리명국

새 제품개발에 힘을 넣고있다.

제품마다에 정성을 담아

농장원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살림집들과 범안원, 범안문화회관 등이 이채롭게 꾸려졌다.

변모된 범안리

황해북도 서흥군 범안리가 사회주의문화농촌의 체모에 맞게 더욱 훌륭히 전변되였다.

앞에는 드넓은 양어못들과 푸른 벼포기 설레이는 논벌이 펼쳐지고 병풍처럼 둘러선 산들마다에는 갖가지 과일나무들이 숲을 이룬 아담한 마을은 이채롭게 단장된 살림집들과 학교와 유치원, 병원과 문화회관, 과학기술보급실과 범안원 등이 즐비하게 일떠섬으로써 한폭의 그림을 방불케 하고있다.

온 나라의 농촌들을 더욱 살기 좋은 락원으로 꾸려 농장원들이 도시부럽지 않은 문명을 누려가도록 할데 대한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깊은 관심속에서 범안리에도 새 모습이 펼쳐졌다.

농장에서는 살림집들은 물론 유치원과 탁아소를 비롯한 많은 건물들을 개건하였을뿐아니라 학교와 병원, 과학기술보급실과 문화회관, 상점과 범안원 그리고 60여동의 살림집을 새로 일떠세웠다.

전기로 밥을 짓고 난방도 보장하여 생활에 편리하게 건설된 살림집들과 학교와 유치원, 문화회관과 범안원 등 마을의 그 어디에서나 행복의 웃음 넘쳐나고있다.

불밝은 과학기술보급실에서는 선진영농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탐구의 불빛이 꺼질줄 모르고 문화회관에서는 보다 훌륭한 범안리의 래일을 그려보며 부르는 농장원들의 노래소리가 랑랑히 울려나오고있다.

리발과 미용, 목욕실과 물놀이장, 탁구장과 같은 편의봉사시설과 운동시설들이 갖추어진 범안원은 농장원들의 생활을 보다 문명하게 해주고있다.

자기들의 손으로 살기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을 꾸려나간다는 자랑과 긍지를 안고 범안리의 농업근로자들은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마음으로 농사에 총력을 집중하고있다.

사진 리광성 글 김현희

교육시설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이 갖추어져
도시부럽지 않은 생활을 누리고있다.

범안양어장

흥이 나는 탈춤

선진영농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대동땅의 세쌍둥이

조선에서는 세쌍둥이들이 태여나면 경사스러운 일로, 나라가 흥하는 징조로 여기면서 그들모두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특별히 돌봐준다.

평안남도 대동군 대동읍에서 살고있는 세쌍둥이인 박중애, 박경애, 박창수의 나이는 올해 60살이다.

대동군이 생긴 이후 첫 세쌍둥이인 자기들이 태여났을 때 평범한 근로자들이였던 그들의 부모들은 기쁨보다 걱정이 앞섰다고 한다.

당시 산모인 허확실은 조국해방전쟁(1950. 6. 25-1953. 7. 27.)시기에 당한 불행으로 하여 자식 셋은커녕 둘도 제대로 키울수 없는 상태였었다.

그리고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후복구건설을 진행한데 이어 사회주의기초건설을 다그치던 어려운 시기였다.

그러한 때 나라에서는 그들의 주택조건과 살림살이형편 등을 료해하고 아늑한 곳에 자리잡은 당시 군적으로 제일 큰 네칸짜리 살림집에 이사하도록 하여주었다.

그리고 많은 액수의 자금과 영양제, 의약품, 피복류 등을 세쌍둥이의 출생이후는 물론 돌생일을 비롯한 계기때마다 거듭거듭 안겨주었다.

뿐만아니라 세쌍둥이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 의사와 간호원, 보육원이 고정적으로 담당배치되였다.

첫돌을 맞은 세쌍둥이 주체48(1959)년

나라에서는 세쌍둥이들과 부모들에게 은장도와 금반지를 보내주었다. 주체81(1992)년

태여나서부터 시작된 세쌍둥이의 복받은 삶은 유치원과 소학교, 중학교과정을 거쳐 대학들을 졸업하고 행복한 새 가정들을 이룬 후에도 연연히 이어졌다.

이들은 나라에서 전국의 세쌍둥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에게 은장도와 금반지를 수여할 때 제일 선참으로 받아안았다.

어느덧 60년의 세월이 흘러 세쌍둥이가 자식들에 이어 손자, 손녀들까지 거느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지금도 아이적처럼 품에 안아 보살피는 국가의 관심은 여전하다.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그 사랑과 은정을 마음속에 소중히 새기고 오늘도 건강과 희열에 넘쳐 인민정권기관과 급양, 상업봉사부문들에서 자신들의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는 박중애, 박경애, 박창수 세쌍둥이이다.

사진 홍광남 글 최광호

급양봉사부문에서 일하고있는 첫째 박중애 (오른쪽에서부터 두번째)

둘째 박경애는 상업봉사부문에서 일하고있다. (가운데)

인민정권기관에서 사업하고있는 셋째 박창수 (가운데)

애국의 마음 바쳐

두해전인 주체105(2016)년 가을 평안북도 태천군에 새로 건설된 룡업합영회사 태천룡업공장에서는 첫 푸르푸롤시험생산이 있었다.

나라의 화학공업발전에서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공업창설을 위한 시험생산을 앞둔 그날 김재설사장에게는 오늘을 위해 걸어온 10여년의 고심어린 나날들이 돌이켜졌다.

화학전문가도 아닌 그가 푸르푸롤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것은 주체93(2004)년 가을이였다.

어느날 평양시 교외에 있는 한 농장에 나갔던 그는 탈곡장들마다에 가득 쌓여있는 강냉이송치들을 보고 생각이 깊어졌다.

당시 강냉이송치는 농촌들에서 땔감으로 쓰이였고 극히 일부는 버섯생산에 리용되고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그는 다른 식물들과 같이 강냉이송치에도 유용성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떠올라 그때부터 파고들기 시작하였다.

모교의 화학부 유기화학강좌며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 인민대학습당을 찾아다니는 과정에 그는 강냉이송치에 푸르푸롤을 생산할수 있는 펜토잔이라는 성분이 30%나 들어있을뿐아니라 푸르푸롤을 출발원료로 하는 경제적효과가 큰 새로운 화학공업분야를 창설할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리고 나라의 강냉이생산량을 볼 때 원료난을 모르는 매우 실리적인 사업이였다.

세계적으로 몇개 안되는 나라의 독점물인 푸르푸롤은 그 생산에 대한 과학적인 기초부터 파고들어야 하는 초행길이였지만 그는 생산공정도설계로부터 설비배치와 조립, 건물건설에 이르기까지 자체의 힘과 지혜로 탐구하고 창조하면서 개척해나갔다.

이렇게 걸어온 12년이 드디여 시험생산의 날을 가져왔던것이다.

그러나 푸르푸롤생산은 높은 온도와 압력속에서 련속적으로 진행되는 생산공정인것으로 하여 사소한 실수나 부주의가 대폭발사고와 인명피해를 가져올수 있다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는 그였다. 생사를 기약할수 없는 시험생산의 48시간, 애국의 숨결만이 맥박친 그 순간순간은 드디여 성공을 가져왔다.

시험생산 2일만에 그처럼 고대하던 푸르푸롤이 쏟아져 온 공장은 기쁨으로 설레였다.

김재설사장을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시험생산의 성공에 이어 푸르푸롤의 순도를 99. 98%로 높이였으며 생산을 정상화하여 여러 경제부문들에 보내주고있다.

그리고 푸르푸롤을 생산하고 나오는 강냉이송치찌끼를 푸르푸롤생산용보이라의 연료로 리용함으로써 많은 석탄을 절약하고있다.

나라의 크나큰 재부를 창조하기 위해 바친 김재설 룡업합영회사 사장의 애국적인 소행은 온 나라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사진 최원철 글 김태현

김재설은 푸르푸롤을 출발원료로 하는 여러가지 화학제품들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언제나 로동자들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열쇠를 찾아내고있는 김재설

아름다운 거리에 비낀 모습들

조선의 수도 평양에 에네르기절약형, 록색형거리로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려명거리에 들어서면 언제나 밝고 깨끗하여 마음이 상쾌함을 금할수 없다.

아름다운 이 거리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자기를 바쳐가는 대성구역도로시설관리소 도로관리원들의 소중한 마음이 깃들어있다.

황홀한 새 거리와 현대문명의 꽃방석에 인민을 앉혀주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도록 하여주는 사회주의조국의 고마움을 가슴깊이 간직한 이들이기에 도로를 관리하고 화단을 가꾸는데 진심을 바쳐가고있으며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얼굴에 비끼는 웃음에서 보람을 찾고있다.

일터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긍지를 안은 여기 도로관리원들에 의하여 려명거리는 나날이 더욱 아름다워지고있다.

사진, 글 리명일

고구려(B. C. 277년-A. D. 668년)시기의 씨름무덤의 벽화

민족체육

씨 름

씨름은 고조선(B. C. 30세기 초-B. C. 108년)말기부터 조선인민의 생활에서 힘과 재주를 겨루는 특색있는 경기로 진행되여온 민족체육종목의 하나이다.

력사기록에 의하면 씨름은 고구려때에 와서 내용과 방식이 더욱 완성되고 풍부화되였다.

씨름과 관련한 력사적자료는 고구려사람들의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무덤벽화들에 뚜렷이 반영되여있다.

고구려(B. C. 277년-A. D. 668년)시기의 씨름무덤(4세기 말)의 무덤칸 우측벽에는 두명의 힘장사가 서로 맞잡고 씨름을 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그려져있으며 장천1호무덤에 그려진 씨름장면도 씨름무덤의 씨름과 다를바 없다.

18세기의 화가 김홍도가 그린 조선화 《씨름》

조선에서는 민속명절과 여러 계기들에 씨름경기를 진행하고있다.

조선씨름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 각 민족들의 씨름내용과 형식 및 방법들과 비교하여보면 공통점도 있지만 독특한 점도 있다.

허리띠와 다리띠를 결합하여 만든 샅바를 사용하는 조선씨름은 샅바를 잡으면 누구나 다 할수 있으며 씨름기술을 쓰는데서도 간편하고 쉽기때문에 대중성을 띤다.

18세기의 이름난 화가 김홍도가 그린 조선화 《씨름》에는 승부를 겨루고있는 두 씨름군과 그것을 구경하는 인물들의 모습이 생동하게 그려져있는데 이것은 조선인민이 씨름을 즐겨 진행하여왔다는것을 잘 알수 있게 한다.

조선인민은 민속명절날에는 물론 모내기와 김매기, 가을걷이때의 쉴참에도 씨름판을 벌리며 흥성이였다.

씨름은 지방별 풍습과 취미에 따라 그 형식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나이와 수준에 맞게 상씨름, 중씨름, 애기씨름으로 나누어 판막이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오늘 씨름경기는 전국적규모에서 진행되고있는 체육대회들에서 중요한 종목으로 되고있다.

해마다 조선의 민속명절인 추석을 맞으며 씨름애호가들의 커다란 관심속에서 대성황리에 진행되고있는 대황소상전국민족씨름경기는 몸무게에 따르는 단체경기와 비교씨름의 형식으로 진행되고있으며 우승자에게는 시상을 하고있다.

지난날에는 힘만 세면 무조건 씨름경기에서 이기는것으로 여겼지만 날이 감에 따라 수많은 씨름기술수법들이 연구정리되고 일반화되여 경기에서 선수가 상대자의 약점을 리용하여 어떤 수법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승패가 크게 달라지고있다.

오늘도 씨름은 조건과 시간, 장소 및 대상에 구애됨이 없이 대중화되고있는 흥미있는 민족체육종목으로서 근로자들의 힘과 인내력, 용감성과 투지를 키워주며 온 나라에 락천적인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고있다.

사진, 글 강철진

씨름은 가정과 일터에서도 널리 장려되고있다.

씨름수법을 과학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있는 체육과학연구사들과 체육인들

낸곳 : © 조선화보사 2018 주소 :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인쇄소 : 외국문출판사 인쇄공장
ISSN 1727 - 9224
편집 한형주 13606-1881141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 ://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 : flph@star－co.net.kp

뒤표지: 칠보산 외칠보 만물상의 아침
사진 리광성